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내리시는 진단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고 선언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롬 3:23)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인생들은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아갈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는지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어느 누구 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고 모두 다 악을 범하는 더러운 죄인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아마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남을 도우면 도왔지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선언을 들을 때 선뜻 동의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발심마저 드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은 왜 나 같은 착한 사람까지도 죄인 취급을 하느냐는 반감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타고나는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선을 베푸는 경우에라도 그것이 도리어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악한 결과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정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선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선을 행하실 수 있으신데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수준의 선을 도무지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신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수준의 선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노력이 있든 없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피로 죄 사함 즉 죄를 용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없다고 불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떠한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의인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들의 선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한 일입니다.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찾고 그 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11:1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그 분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의미에서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악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4:1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돌아온 의인들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악인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 너의 산으로 피할 것이지 하나님께 피하냐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11:2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악인인 것을 숨기며 오히려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의로운 행실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와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불러 주시는 것이 진짜 의인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한 일들을 함으로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